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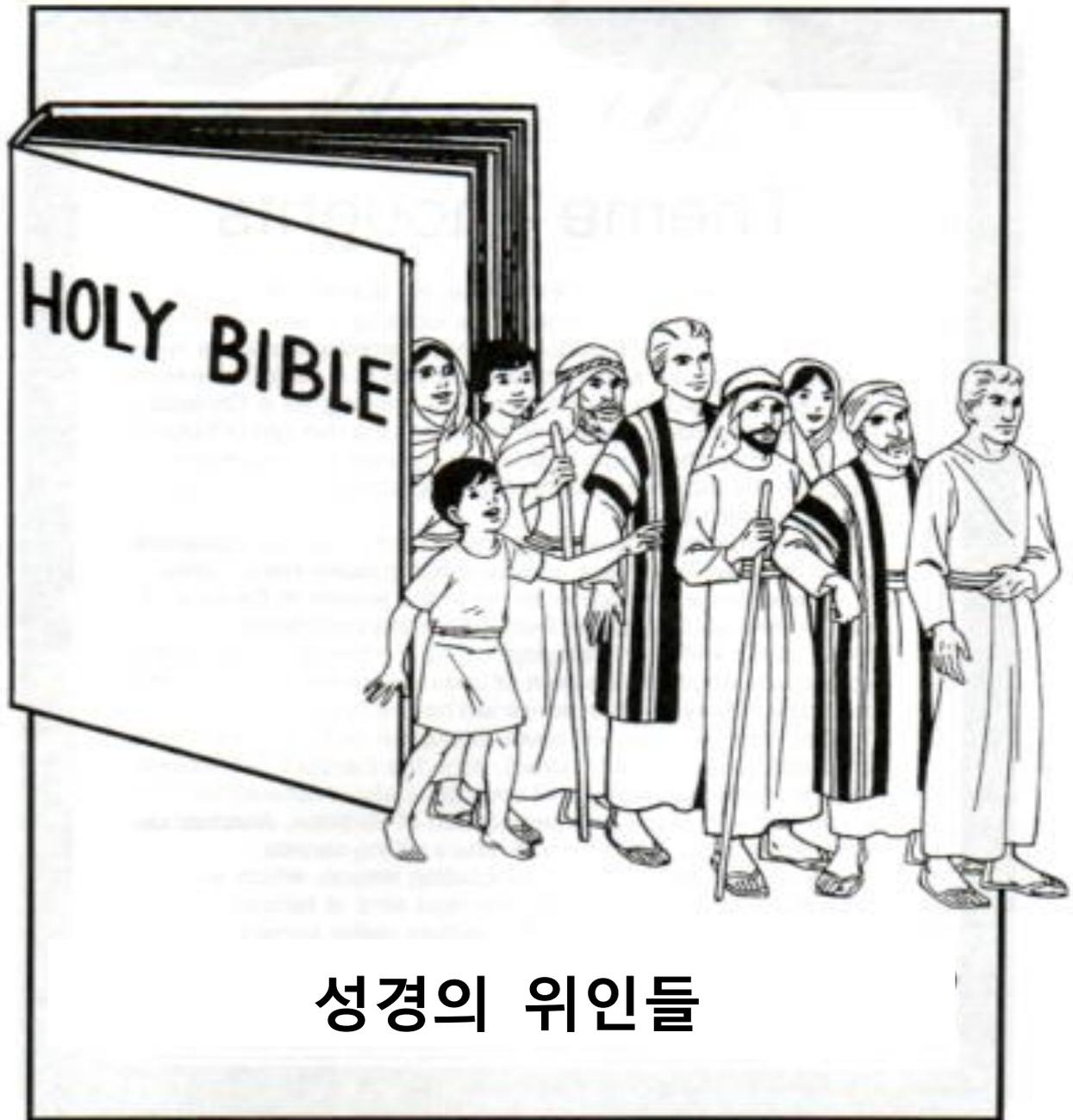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 청소년 공과

## 제 6 권



성경의 위인들

KAFC 출판부

## 주제: 성경의 위인들

순서	청소년 공과
제 66 공과	기적
제 67 공과	순종
제 68 공과	매일 크리스마스라면
제 69 공과	예수님을 증거해요
제 70 공과	하나님을 의지한 승리
제 71 공과	승리의 비결
제 72 공과	헌신
제 73 공과	믿음의 본
제 74 공과	부당한 일
제 75 공과	인내하기
제 76 공과	한밤 중의 메시지
제 77 공과	자원하는 자
제 78 공과	성경의 위인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KAFC(한국 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사 및 수정,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위인일까요? 그 사람의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위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위인들의 모습을 모델 삼아 그의 행동을 따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성경 속 위인들의 모습을 닮고 싶습니까?

이번 공과는 성경 속 인물들의 좋은 특성들을 공부하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다양한 위인들에 관해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 중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벳의 믿음, 드보라의 확신, 사르밧 과부의 위기 극복,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인내는 우리가 배우게 될 여성 위인들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또한, 사가랴의 믿음, 요셉(예수님의 육체적 아버지)의 순종,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증거의 삶, 기드온의 용기 있는 모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갈렙의 결심, 스테반이 박해당한 모습, 아나니아의 결단, 하나님을 섬기기를 자원하는 엘리사 등을 배울 것입니다.

이번 공과에서 성경 속 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위인들의 모습을 본받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누군가에게 좋은 모본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좋은 모본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제 66 공과 기적

성경본문: 누가복음 1:5-25, 57-66

요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태복음 19:26)

지난 몇 달 동안 지나는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몸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의사와 면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짧게 끝날 거로 생각하지 못했던 지나는 의사의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의지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저의 몸을 치료해 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지금 의학적인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성경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 19:26) 그녀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녀에게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질수록 ‘나의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지나는 그녀의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몸에 있던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공과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가라는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생기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는 지금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행하던 중 그에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사가 분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가랴는 두려웠습니다. '분향단 옆에 서 있는 분은 누구일까? 그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는 궁금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이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압니까? 나와 나의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네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사가랴가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쓰자 그는 곧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Lesson 66 Activity

**GOD GIVES LIGHT**

God gives us light, or understanding, when we read His Word and follow Him. How much light did you receive from the lesson this week? Read these statements. If the statement is true, circle the lighted bulb; if it is false, circle the dark bulb.

	<input type="radio"/>	Herod was king.
	<input type="radio"/>	Zacchaeus was the priest's wife.
	<input type="radio"/>	Zacharias burned incense in the Temple.
	<input type="radio"/>	The angel of the Lord was standing on the altar.
	<input type="radio"/>	The angel told Zacharias to name the baby John the Baptist.
	<input type="radio"/>	The baby would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from his mother's womb.
	<input type="radio"/>	The angel's name was Michael.
	<input type="radio"/>	Zacharias could not see because he didn't believe the angel.
	<input type="radio"/>	When the baby was born everyone thought his name should be Gabriel.
	<input type="radio"/>	Elisabeth said his name was John.
	<input type="radio"/>	Zacharias wrote, "His name is John."
	<input type="radio"/>	After Zacharias wrote the name he could talk again.

**WHAT MAKES A HERO?**

##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아래 문장에서 이번 공과 내용과 맞는 문장에는 환한 전구에 동그라미를 하고, 틀린 문장에는 검은 전구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Herod was king.



Zacchaeus was the name of the priest.



Elisabeth was the priest's wife.



Zacharias burned incense in the Temple.



The angel of the Lord was standing on the altar.



The angel told Zacharias to name the baby John the Baptist.



The baby would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from his mother's womb.



The angel's name was Michael.



Zacharias could not see because he didn't believe the angel.



When the baby was born everyone thought his name should be Gabri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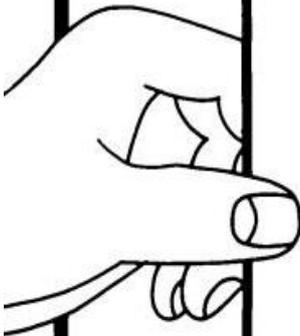
Elisabeth said his name was John.



Zacharias wrote, "His name is John."



After Zacharias wrote the name he could talk again.



## 제 67 공과 순종

성경본문: 마태복음 1:18-25

요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누가복음 11:28)

몇 주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디에고, 소피아, 이사벨라는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누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 줄 것인지,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막내 이사벨라는 천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합창을 하잖아. 나는 천사찬양대가 되었어. 나는 하늘색 반짝이 천사 옷을 입고 제일 앞줄에 서서 찬양 할거야.”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너는 정말 예쁜 천사 역할을 잘할거야.” 소피아가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천사 역할을 하게 되었어. 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야.”

디에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소피아,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던 천사 아니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었니?”

“오빠, 내가 맡은 천사 역할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요셉에게도 나타나는 거야. 지난 주일에 연극 대본을 받고 내용을 읽어봤거든.”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요셉 역할을 하는데 아직 대본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다가 요셉에게도 가나요?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요셉에게 나타난 것 아닌가요?” 디에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들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을까?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

디에고의 아버지는 마태복음 1 장 19 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디에고가 말했습니다. “아, 제가 궁금해했던 답이 여기에 있네요. 저는 이 말씀을 몰랐네요. 그런데, 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야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몰랐을까요?”

아버지께서 대답했습니다. “디에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수백 년 전에 주셨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사는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요셉은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거야.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것 같은데! 그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지. 그의 순종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단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디에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들아, 작년 가을에 아빠와 함께 캠핑하러 가기로 약속했을 때 캠핑하러 가려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네, 학교 시험에서 모든 과목 성적이 A 또는 B 여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고, 신나는 여행을 아빠와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 네가 아빠와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빠도 너를 데리고 여행을 갈 수 있었던단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단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지난달에 외운 성경 말씀이 지금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너희들 기억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사벨라가 한번 말해볼까?”

“아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인가요?” 이사벨라가 물었다.

“맞아.”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단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고.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단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단다.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란다.”

“아들아, 궁금한 것이 해결됐니?” 아버지는 성경을 덮으면서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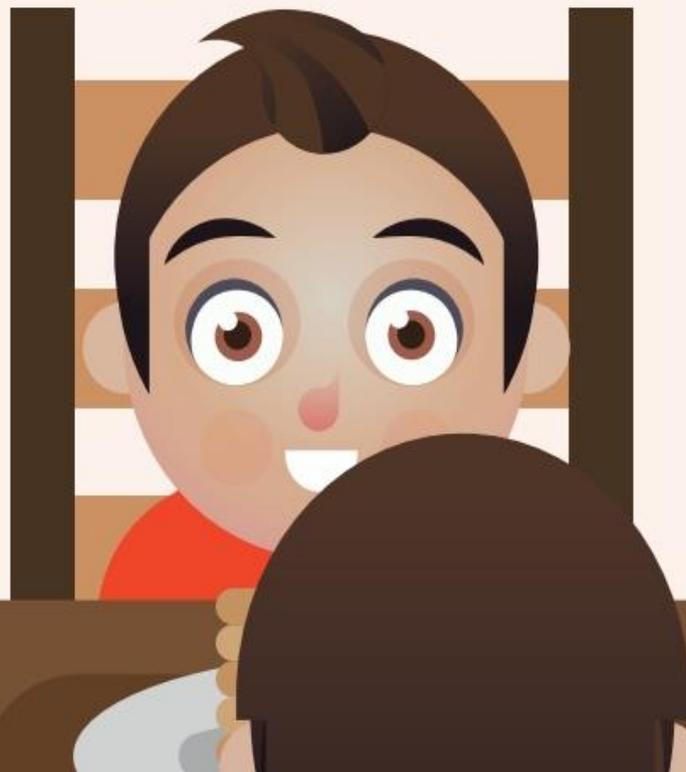
“네,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요셉처럼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esson 67 Activity

**OBEDIENCE  
BRINGS  
HAPP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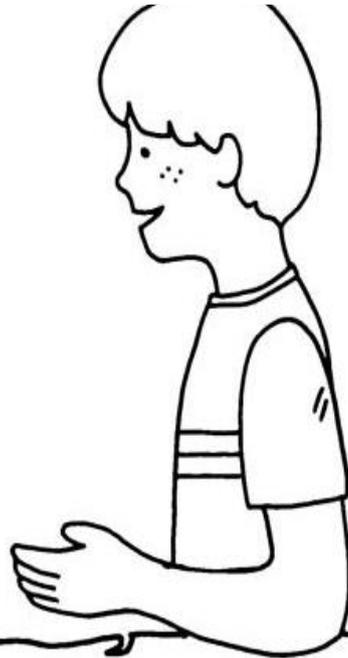
Are you happy to obey God's directions? Joseph was! Use the secret code and fill in the blank spaces. You'll find a promise for those who obey God.



# 순종하면 행복할까요?

아래 암호 코드를 사용하여 누가복음 11장 28절(KJV)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A	B	C	D	E	F				
CODE: ◇	●	○	♥	■	☞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Q	R	S	T	U	V	W	X	Y	Z
⊗	▲	○	□	♥	☆	☒	☑	⊕	◆



B U T   H E   S A I D,   Y E A  
 ● ♥ □   ✓ ■   ○ ◇ ☎ ♥   ⊕ ■ ◇  
R A T H E R,   B L E S S E D   A R E  
 ▲ ◇ □ ✓ ■ ▲   ● ★ ■ ○ ○ ■ ♥   ◇ ▲ ■  
T H E Y   T H A T   H E A R   T H E  
 □ ✓ ■ ⊕   □ ✓ ◇ □   ✓ ■ ◇ ▲   □ ✓ ■  
W O R D   O F   G O D,   A N D  
 ☒ || ▲ ♥   || ☞   # || ♥   ◇ ☞ ♥  
K E E P   I T.  
 \*\* ■ ■ ☞   ☎ □

Luke 11:28

## 제 68 공과 매일 크리스마스라면

성경본문: 이사야 9:6-7; 요한복음 1:1-5, 14; 히브리서 13:8

요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14)

잭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풀어보면서 동생 에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매일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어요! 근사한 선물도 많이 받고 음식도 푸짐하고 매일 크리스마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여동생 에바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책을 읽다가 오빠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이 크리스마스라면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매일 우리 옆에 계시지?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영원한 분이라는 거지?” 잭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오빠의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실 거야. 내가 대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잭은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예전에도 살아 계셨나요? 에바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접시를 찬장에 넣은 후 잭을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빠가 오늘 아침에 읽으셨던 말씀 기억하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요 1:3)'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무들, 동물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단다.”

잭은 어머니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나요?”

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지. 예수님은 네가 기쁠 때, 슬플 때, 다쳤을 때, 외로울 때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신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른이 되었지. 예수님은 아빠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힘든 것 또한 모두 아시지. 그리고, 죽음 또한 어떤 것인지 잘 아신단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태어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단다.”

잭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 배웠지? 기억나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40 일동안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 가셨단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하는군요.” 잭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잭은 거실에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살펴보다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밖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여름 할아버지네 농장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건초 더미 위에서 놀기도 하고 할아버지를 도와 농장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할아버지 농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그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갔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모래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봄에는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가로질러 언덕을 내려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즐거웠지만, 배가 고프고 피곤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잭은 학교 가는 것, 방 청소하는 것, 병원 가는 것, 치과 가는 것 등 영원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습니다.

잭은 크리스마스가 매일 매일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으면 싫을 것 같았습니다.

잭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시지 않는다면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잭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Lesson 68 Activity

**WHAT IS CHRISTMAS?**

These squares will help you find out what Christmas is. Choose a number from one to three. Start with the squares on the top row. On the lines provided, print all the letters in the squares with that number.

1	2	3	1	2	3	1	2	3
TH	GO	A	E	D	SA	BI	SE	VI

2	3	1	2	3	1	2	3	1
N	OR	RTH	T	WA	DA	JE	S	Y

3	1	2	3	1	2	3	1	2
BO	O	SU	RN-	F	S	CH	JE	DO

1	2	3	1	2	3	1	2	3
SU	WN	RI	S	T	ST	CH	O	TH

2	3	1	2	3	1	2	3	1
E	E	R	AR	LO	IS	TH	RD	T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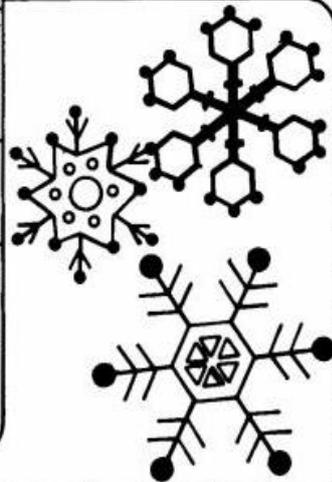
---



# 크리스마스란?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줄을 시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같은 숫자 암호를 풀어 보세요. 같은 숫자에 적힌 알파벳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	2	3	1	2	3	1	2	3
TH	GO	A	E	D	SA	BI	SE	VI
2	3	1	2	3	1	2	3	1
N	OR	RTH	T	WA	DA	JE	S	Y
3	1	2	3	1	2	3	1	2
BO	O	SU	RN -	F	S	CH	JE	DO
1	2	3	1	2	3	1	2	3
SU	WN	RI	S	T	ST	CH	O	TH
2	3	1	2	3	1	2	3	1
E	E	R	AR	LO	IS	TH	RD	T



CHRISTMAS:

1: The birthday of  
Jesus Christ

2: God sent Jesus  
down to earth

3: A Savior was  
born - Christ  
the Lord

## 제 69 공과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경본문: 요한복음 1:15-30

요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요한복음 1:23)

“저 아이 좀 봐. 이번에 전학을 온 학생이야.” 브라이언은 학교 급식실로 오는 학생을 가리키며 체이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재는 크리스천이래. 나는 저 아이와 거리를 두려고, 나는 교회 다니는 아이 싫거든.”

“왜? 저 아이는 친절하던데. 나는 재랑 몇 번 얘기해 봤어. 저 친구는 우리 집 가까이 살아. 너는 왜 교회 다니는 아이를 싫어하니?” 체이스가 브라이언의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너 케빈 기억나니? 몇 년 전에 케빈이 이사를 하여서 너는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케빈이 교회 다니는 아이였거든. 케빈을 생각하면 늘 나의 행동을 지적하고 설교하듯이 잔소리했던 것이 기억나. 케빈은 늘 바른 소리만 해서 나는 개가 말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체이스와 브라이언은 새로 전학을 온 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지 못하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레인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케빈처럼 잘못을 지적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가 다 케빈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레인과 친구가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브라이언이 교문을 나오는데 체이스가 레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레인이 체이스에게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그들에게 가까이 가 보기로 했습니다. 레인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안녕! 오늘 집에 가서 뭐 할거니? 체이스랑 우리 집에 가서 농구할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거든.”

브라이언은 레인이 어떤 아이인지 알아보기 위해 레인의 집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나도 같이 갈게.”

그들은 레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이언과 체이스는 레인의 집 마당에 있는 농구대 앞에서 농구공을 가지러 간 레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체이스가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브라이언에게 레인의 집에 같이 오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정말 옳은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 브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레인은 농구공을 가지고 오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께서 쿠키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고 계셔. 우리 농구 하고 간식을 먹으러 가자. 어머니께서 쿠키와 음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들은 한 시간 동안 신나게 농구했습니다. 그들은 농구하면서 중간마다 그들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자동차, 취미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자기 아빠와 같이 배낭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낭 여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레인이 배낭여행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레인과 같이 여행을 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레인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조금 쉬면서 우리 집에 가서 간식 먹을까?”

“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어머니께서 초콜릿 케이크는 나중에 먹는다고 하셨는데.” 레인이 대답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아무도 모르게 조금만 가지고 오면 어때? 너희 엄마는 케이크가 없어진 것도 모르실걸, 조금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나는 초콜릿 케이크 정말 좋아하거든.”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크리스천이야.” 레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크리스천인데, 나에게 설교하듯이 말하지 않네. 너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브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레인은 웃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항상 설교하지 않는데! 크리스천들은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야 해.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케이크 가져오라고 했을 때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거나 핀잔을 주지 않았어.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 널 보면서 크리스천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없어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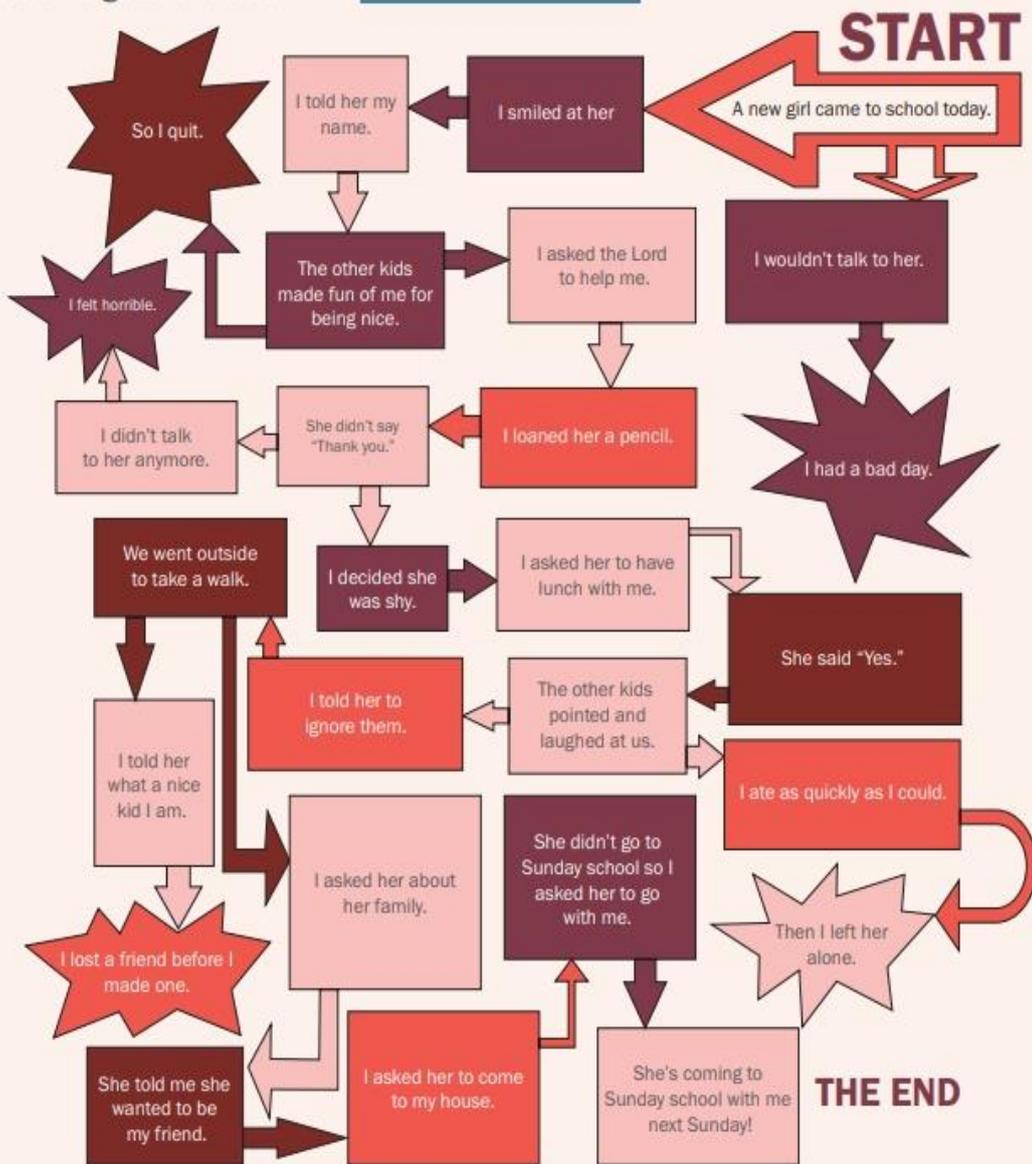
체이스는 그들을 보면서 혼자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모두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Lesson 69 Activity

**WITNESS FOR JESUS**

Follow the arrows to solve this maze. When you make a poor choice, you will run into a dead end. When you come to THE END you will have made a complete story and some good choices.



**WHAT MAKES A HERO?**

#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START**



## 제 70 공과 하나님을 의지한 승리

성경본문: 사사기 4:4-15

요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사사기 12:2)

어떤 군대가 총이나 칼, 방패,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장비도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지휘관이 이런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까요? 그 전쟁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들만 가지고 있던 특별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반대의 결과를 경험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드보라' 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드보라 사사를 신뢰했고,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시고 그녀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내어 가나안 군사들과 전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나 탄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군대가 철병거 900 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가능한 전투였을까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전쟁에 나섰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의 상황을 볼 때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드보라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락은 그녀에게 그들과 함께 전쟁에 간다면 그들이 갈 것이지만 그녀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군사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땅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탄은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심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 계획이나, 여름 캠프에 관한 계획, 학교 시험에 대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우리의 탄약 즉 기도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영혼의 전투에서 주관자가 되시길 원한다면 비록 그것이 그때 바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이사야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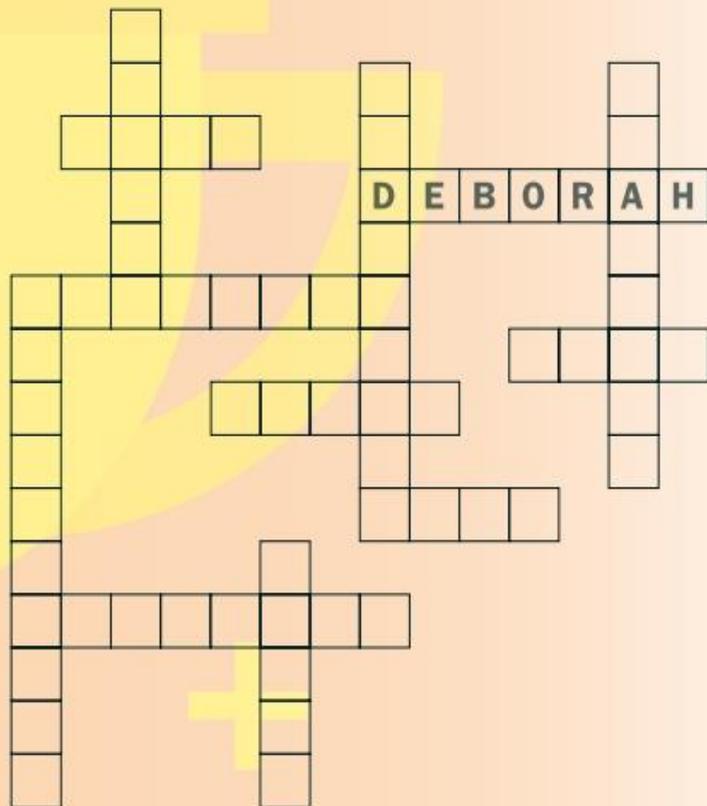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로마서 8:31)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Lesson 70 Activity

**DEBORAH  
TRUSTED GOD**

All of the words listed below are from our lesson this week. Find a place in the grid for each of them.

- ARMY
- IRON
- TENT
- BARAK
- RIVER
- ISRAEL
- CHARIOTS
- PALM TREE
- THOUSAND
- JUDGEMENT
- PROPHETESS



WHAT MAKES A HERO?



## 제 71 공과 승리의 비결

성경본문: 사사기 6:36-40; 7:1-8

요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사사기 6:12)

내가 마른 양털을 만지는 순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양털 주위의 땅은 아침 이슬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양털은 말라 있었습니다. 양털을 만지는 나의 손은 떨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로 부터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늘 공포와 위협으로 움츠리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서 모인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만 이천 명이었습니다. 북쪽 골짜기에 있는 미디안 적들은 여름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삼만 이천 명 중 2/3 가 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미디안 적들과 이렇게 적은 수로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마른 양털을 기억했습니다.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시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물이 흐르는 시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의아해했지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너무 뜨겁고 날씨는 건조해서 다들 목이 말랐습니다.

평소라면 나는 목이 말라 허겁지겁 물을 먹었겠지만, 하나님은 물을 먹는 모습을 잘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먹을 때 얼굴을 물에 담그며 먹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을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 삼백 명만 미디안 적들과 싸울 것이니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삼백 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미디안 사람들은 패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Lesson 71 Activity

**GIDEON'S COURAGE**

We don't have to be afraid when God is on our side! God was on Gideon's side and he wasn't afraid. Using Judges 7:1-15, learn about Gideon as you do this acrostic puzzle. The letters at the beginning of the phrases should match the letters given in the box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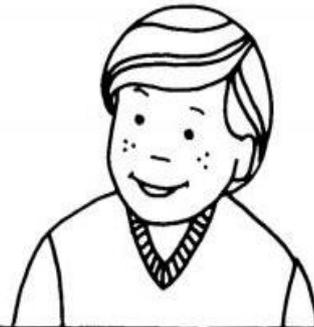
- M** What the people of Midian are called (*verse 1*)
- I** Jerubbaal was also known as . . . (*verse 1*)
- G** The mountain mentioned in (*verse 3*)
- H** Gideon's servant (*verse 10*)
- T** A place of shelter (*verse 8*)
- Y** A cake of \_\_\_\_\_ tumbled into the tent of the enemy (*verse 13*)
- M** A Midianite interpreted this (*verse 15*)
- A** Another name for Gideon (*verse 1*)
- N** Three hundred \_\_\_\_\_ lapped the water (*verse 7*)
- O** Small animal in story (*verse 5*)
- F** Some men were fearful or \_\_\_\_\_ (*verse 3*)
- V** Another word for food (*verse 8*)
- A** The enemy was like this insect (*verse 12*)
- L** Large animal in story (*verse 12*)
- O** Gideon's father (*verse 14*)
- R** Gideon told the men, "\_\_\_\_\_"; for the Lord hath delivered into your hand the host of Midian." (*verse 15*)

The puzzle grid consists of 16 rows of boxes. The first column contains the letters M, I, G, H, T, Y, M, A, N, O, F, V, A, L, O, R. The rest of the grid is empty for the student to fill in.

**WHAT MAKES A H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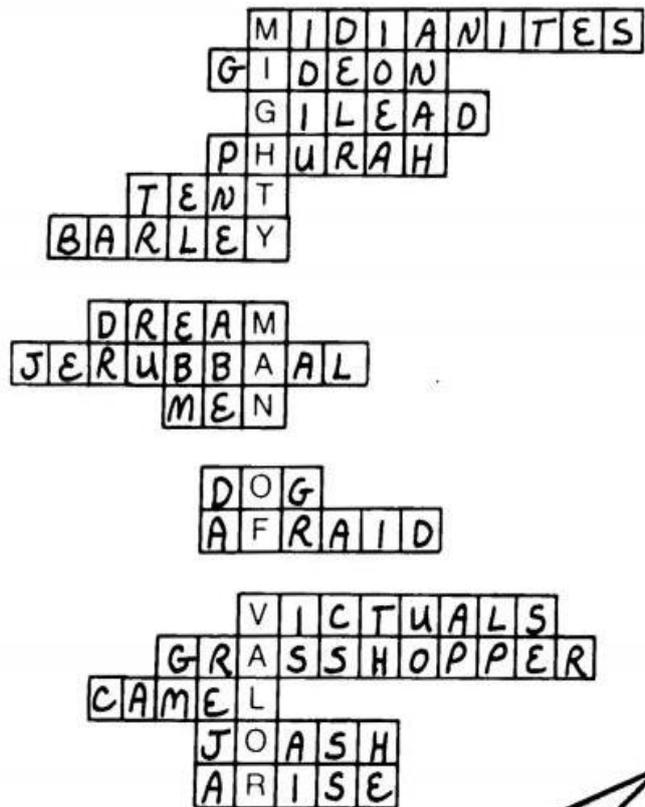
## 기드온의 용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해 주셨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사기 7:1-15 참조)



Q

- M What the people of Midian are called (verse 1)  
 I Jerubbaal was also known as ... (verse 1)  
 G The mountain mentioned in verse three  
 H Gideon's servant (verse 10)  
 T A place of shelter (verse 8)  
 Y A cake of \_\_\_\_\_ tumbled into the tent of the enemy (verse 13)  
 M A Midianite interpreted this (verse 15)  
 A Another name for Gideon (verse 1)  
 N Three hundred \_\_\_\_\_ lapped the water (verse 7)  
 O Small animal in story (verse 5)  
 F Some men were fearful or \_\_\_\_\_ (verse 3)  
 V Another word for food (verse 8)  
 A The enemy was like this insect (verse 12)  
 L Large animal in story (verse 12)  
 O Gideon's father (verse 14)  
 R Gideon told the men, "\_\_\_\_\_ for the LORD hath delivered into your hand the host of Midian." (verse 15)



## 제 72 공과 헌신

성경본문: 사사기 14:6-13; 민수기 13:17-33

요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마가복음 10:28)

리나는 침대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벌써 저녁 10 시가 넘었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밤은 그녀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면서 학교생활로 인해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두 과목 시험이 있었고, 방과 후 수업을 늦게까지 하느라 피곤한 하루여서 그런가 봐!’ 그러나 마음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경책에서 여호수아 14 장을 펼쳤습니다. 여호수아 14 장은 다음 주 주일 성경 공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수아 14 장 8 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KJV 흠정역) 그녀는 “온전히 따랐다”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왜 무거웠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척 외면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그녀에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온전한 헌신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청소년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매주 주일 성경 공과 말씀을 공부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온전한 헌신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녀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되는데,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친구를 사귀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남자와 데이트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무슨 직업을 가질지……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일을 하다가 가난하게 살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친구와 가족들을 떠나 먼 나라로 선교를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결혼을 못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녀는 마음의 걱정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에 두려워했으므로 광야에서 별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4 장 말씀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갈렙이 밟는 땅이 그와 그 자손의 것이 되리라 말한 모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의 뜻에 따를 때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갈렙이 될 것인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인가?’ 리나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Lesson 72 Activity

**FOLLOW THE LORD!**

Caleb wholly followed the Lord and was blessed by Him. Starting at CALEB, follow the path in this puzzle to find a promise God has for you. The first I is circled for you. Now circle every third letter or symbol on the path. Then write the circled letters on the lines provided.



Proverbs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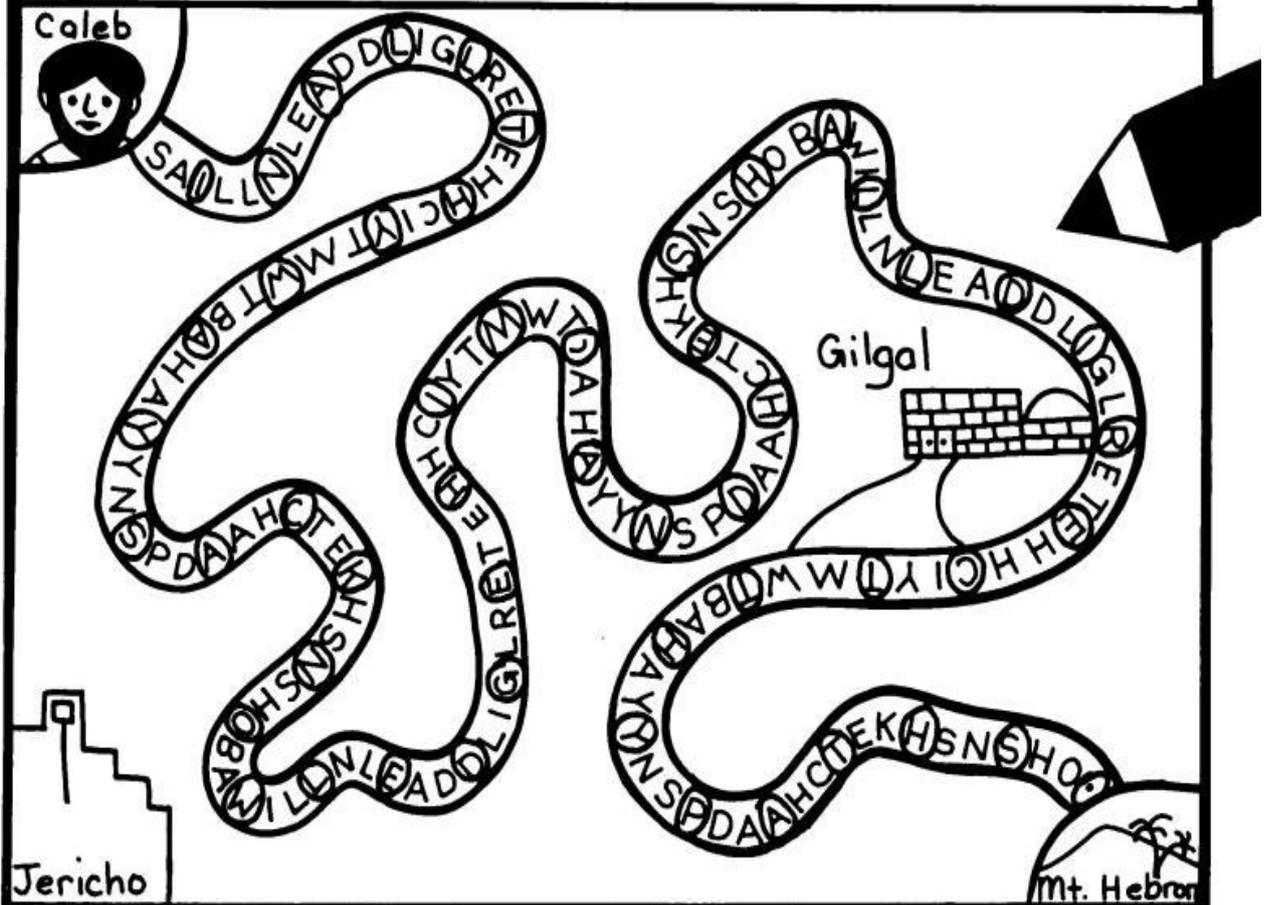
---

---

WHAT MAKES A HERO?

## 주님을 따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으로 나아가는 퍼즐 그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 알파벳을 시작으로 세 번째 알파벳마다 동그라미를 하세요. 동그라미를 한 알파벳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S.

Proverbs 3:6

## 제 73 공과 믿음의 본

성경본문: 열왕기상 17:8-16

요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나는 할머니를 빨리 뵙고 싶어 할머니 댁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기에게 달려오는 나를 두 팔로 포근하게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내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르우벤 많이 컸구나. 너를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할머니, 저는 오늘 할 일을 다 했어요. 어머니도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니?” “밀가루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이야기요.”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빨리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듣는 일은 절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 옆에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아주 힘들 때가 있었단다. 몇 달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풀과 나무들이 시들고 땅은 황폐해졌지. 모든 개울과 시내의 물들이 말라 버렸단다. 이때는 물이 아주 귀한 것이 되었고, 음식도 구하기가 힘들단다. 나는 먹을 음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단다. 그때는 너의 아버지가 르우벤 너보다 키도 작고 마르고 왜소했지. 나는 내가 먹을 음식을 아껴가며 너의 아빠에게 주었단다.”

“그런데, 나는 마지막 한 번 만들어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것을 알고 이것을 먹고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했단다. 나는 빵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면서 내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듯 아팠단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인가 생각했지.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때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단다.”

“그런데, 르우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려고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야.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했지. 물은 음식만큼 소중한 것이었지만, 먼지투성이가 되어 지쳐있는 그 사람을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단다. 나는 물을 가지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니? 나는 나의 슬픈 상황을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말했단다. 나는 나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어 그것을 먹고 나면 우리는 죽게 될지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자, 그 사람은 그가 먹을 빵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나와 아들을 위해 만들라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밀가루 통의 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의 말대로 했단다. 그분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 나는 마지막 남은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그에게 먼저 드렸어. 나는 집으로 다시 가서 밀가루 통과 기름병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보았는지 모른단다. 그분이 말한 대로 기적이 이루어졌단다. 통에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뭐니. 하나님은 나와 너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켜주셨단다. 밀가루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은 이 땅에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있었단다.”

나는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리며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머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믿음으로 행하세요

사르밧 과부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OIL  
CAKE  
GATE  
MEAL  
BREAD  
CRUSE  
FETCH  
WATER  
WIDOW  
ZIDON  
BARREL  
MORSEL  
STICKS  
VESSEL  
ZAREPHATH

R	M	D	A	E	R	B	F	E	T	V	M
A	E	Z	P	W	A	R	E	T	E	E	O
B	A	R	A	L	Z	E	T	A	G	S	R
A	L	T	W	R	O	E	C	H	E	S	S
R	E	A	A	Z	E	T	H	P	S	E	E
R	L	O	D	I	W	P	T	E	K	L	S
E	E	I	I	A	I	W	H	R	C	S	U
L	S	T	C	L	D	O	A	A	I	Z	R
O	R	A	A	N	O	D	I	Z	T	R	C
O	O	W	K	K	W	I	D	I	S	H	R
I	M	Z	E	R	E	A	L	D	O	O	U

OIL

FLOUR

## 제 74 공과 부당한 일

성경본문: 사도행전 6:1-15; 7:54-60

요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9)

“선생님, 지아가 내 학습지 종이들을 바닥에 던졌어요!” 칼슨이 선생님께 슬픈 목소리를 내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이 일제히 지아를 쳐다보았고, 지아는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지아는 얼마 전에 이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지아는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지아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아가 자기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아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지아도 그들과 함께하려고 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학교에 처음 온 날부터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지아를 반갑게 맞아주기보다는 차갑게 대하였습니다.

칼슨의 말을 들은 선생님은 지아에게 바닥에 종이를 일부러 던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지아는 놀란 얼굴을 하고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종이를 주워서 제자리에 올려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아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웠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지아의 모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지아는 무언인가 부당하다는 생각과 함께 어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눈물이 울긁 쏟아질 것 같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울게 되면 칼슨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칼슨이 꾸민 것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아야 하는데. 선생님은 왜 칼슨의 편을 들어 모든 학생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는 것일까!’

집에 도착한 지아는 엄마 앞에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오늘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공평하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데, 오늘 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방식에 매번 긍정해 주지 않는단다. 오늘 네가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창피를 주기도 한단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나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지아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단다. 그런데, 때때로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사람들로 부터 부당하게 공격을 받기도 한단다.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것이지.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단다."

오늘 일을 통해 지아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 성경 공과는 스테반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스테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스테반의 말을 듣는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종교적인 사람인 체했을 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스테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테반은 그들의 의해 공의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스테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스테반의 천사 같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스테반에게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스테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가 끝난 후 지아는 자신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일이 스테반에 비한다면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 앞에서 행한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고 마음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스테반은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지아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선생님과 칼슨을 용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아에게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스테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아는 스테반의 삶을 통해 자신의 아픔 경험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스테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Lesson 74 Activity

**WHAT SHOULD I DO?**

Here are three letters from some Christian friends who need advice on how to handle persecution. Using the Bible verses given, can you give them the advice from the Lord?

Dear . . .

While I was at school the other day some kids called me names and made fun of me because I was reading my Bible. Do I still have to love them and include them in my prayers? -Tucker

Dear . . .

Last Saturday when I went shopping with my friends, I found that they were taking some things without paying for them.

I told them it was wrong, but they laughed at me and made fun of me. I feel just awful. Can you give me some encouragement?

Scarlett

DEAR . . .

I AM SO AFRAID TO TELL MY FRIENDS ABOUT THE LORD ANYMORE AFTER WHAT HAPPENED. I TRIED TO TELL A GOOD FRIEND ABOUT JESUS A WHILE AGO AND NOW HE WON'T EVEN TALK TO ME. HE EVEN SAYS BAD THINGS ABOUT ME TO OTHER PEOPLE.

I JUST CAN'T UNDERSTAND. PLEASE HELP!

JAMES

Tucker:

(Matthew 5:44)

Scarlett:

(Matthew 5:12)

James:

(1 Peter 2:20)



##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명의 크리스천 친구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까요? 아래 말씀을 참고하여 답변을 써 보세요.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저를 심하게 놀렸어요.

저는 그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하나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쇼핑물에 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진열된 물건을 주인 몰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했더니 저를 비웃으며 마구 놀려 되었어요. 저는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마태복음 5:44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두려워요.

얼마 전에 저는 한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날 이후 그 친구가 다른 아이들에게 저를 험담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12

베드로전서 2:20

## 제 75 공과 인내하기

성경본문: 마가복음 5:24-34

요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태복음 10:22)

그레이슨은 진흙을 으깨고, 펴고, 두드리고 동그랗게 굴리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는 컵, 접시, 그릇 등 다양한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진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연습하다 보니 도자기 모양이 완성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도자기 만들기 수행평가 날입니다. 그레이슨은 도자기 모양을 잡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자기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도자기 만들기 연습을 할 때는 완성된 작품에 색을 칠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음먹은 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흙을 길쭉하게 말아 꼬면서 컵을 만들었습니다. 컵 바닥을 매끄럽게 하고, 옆 부분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어 가니, 그레이슨?" 선생님이 그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그레이슨은 시계를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안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니! 나는 정말 멋진 도자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벌써 종이 울릴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니!' 그는 이번 도자기 만들기 수행평가에서 'A' 를 받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의 표정을 보며 그의 마음을 알아채시고는 그에게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다고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컵 손잡이 부분을 도와주시고, 컵 양쪽 부분이 서로 대칭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수행평가 시간은 지났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도자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슨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한 후 완성된 컵을 제출하고 자리에 앉아 수행평가 시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었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야.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긴장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졌어. 다행히 힘들지 않게 완성할 수 있었어!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완성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15 분 전만 해도 나는 완전히 낙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새가 하늘을 날아가듯 마음이 정말 편안해. 그래, 예수님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손 내밀어 도와주시지. 맞아, 이번 주 성경 공과 말씀에도 있었잖아.'

예수님께 다가온 여인은 12 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병을 치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녀는 밀고 밀리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보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손을 뻗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인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번 더 손을 뻗는 순간 그분의 옷자락이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병이 완전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레이슨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면 아버지는 나를 많이 칭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마음을 참아내었으니까요! 그는 실패할 것 같은 절망의 마음을 이겨내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도자기를 완성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레이슨은 다음 주 일요일에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절망의 마음을 참고 인내한 후 선생님의 도움으로 도자기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Lesson 75 Activity

**HOW SHOULD WE PRAY?**

The code at the bottom of the page will help you find out what this verse says about being persistent. Remember, each number represents a letter.

16 18 1 25 9 14 7

always with all prayer and

19 21 16 16 12 9 3 1 20 9 15 14

in the

19 16 9 18 9 20, and

23 1 20 3 8 9 14 7

thereunto with all

16 5 18 19 5 22 5 18 1 14 3 5

and supplication for all sa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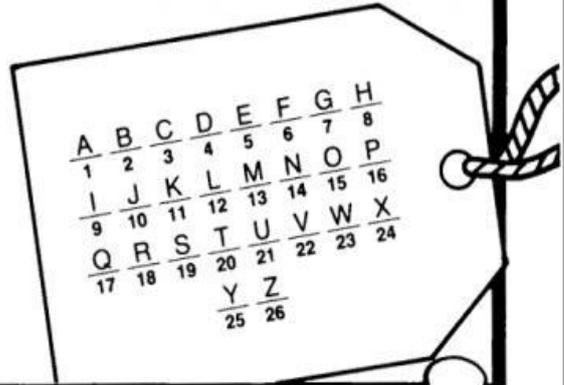
5 16 8 5 19 9 1 14 19 6:18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아래 암호를 풀어 말씀을 완성해보세요. (에베소서 6:18 KJ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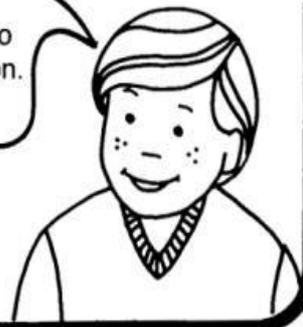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16 18 1 25 9 14 7  
SUPPLICATION in the SPIRIT ,  
 19 21 16 16 12 9 3 1 20 9 15 14 19 16 9 18 9 20  
 and WATCHING thereunto with all  
 23 1 20 3 8 9 14 7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16 5 18 19 5 22 5 18 1 14 3 5  
 all saints.

EPHESIANS 6:18  
 5 16 8 5 19 9 1 14 19



Supplication is to ask humbly.



Perseverance is to keep on keeping on.

## 제 76 공과 한밤 중의 메시지

성경본문: 사도행전 9:10-19

요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이사야 1:19)

아나니아는 자신의 방 좁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똑바로 앉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나도 그것을 안단다. 나는 그를 불러 나를 돕는 나의 귀한 종이 되길 원한단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아나니아야, 너의 길을 걸어가거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밖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소 사람 사울을 변화시키셨다고! 얼마 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일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도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아나니아는 며칠 전에 들었던 이상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비취 그가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음성을 들은 이후, 앞을 보지 못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울의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드신 것인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유다의 집에 도착한 아나니아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문이 곧바로 열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사울을 만나고 싶은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평안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나로 인하여 그가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사울 형제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낮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사울이 놀라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앞이 보입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사하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던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주저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울을 도울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울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아나니아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위협할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Lesson 76 Activity

**CAN YOU HELP?**

Fill in the missing letters in the circles on the file cards. Next write the circled letters on the matching numbered lines on the MEMO. Read the memo and write the number of the file cards for which your response is yes.

9 GIV○  
whatever time I have to help the church grow.

8 S○NG  
a special song for Sunday school.

7 CLE○N  
up the church.

6 H○ND  
out invitations to church activities.

5 TEL○  
a friend about the Lord.

4 PLO○Y  
an instrument.

3 ○RING  
someone to church.

2 HE○P  
my Sunday school teacher.

1 ○ISIT  
the sick.

**MEMO:**

I am \_\_\_\_\_ for \_\_\_\_\_

7 1 4 8 5 6 3 2 9

**WHAT MAKES A HERO?**

## 도와줄 수 있나요?

아래 파일 카드 속 동그라미에는 어떤 알파벳이 들어갈까요? 파일에 적힌 글을 읽고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파일 숫자에 적힌 동그라미 속 알파벳을 왼쪽 밑줄 숫자에 맞게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도와줄 수 있나요?

**MEMO**

I am

**A V A I L L A B L E**

7 1 4 8 5 6 3 2 9

to:

- 1. VISIT**  
the sick.
- 2. HELP**  
my Sunday school teacher.
- 3. BRING**  
someone to church.
- 4. PLAY**  
an instrument.
- 5. TELL**  
a friend about the Lord.
- 6. HAND**  
out invitations to church activities.
- 7. CLEAN**  
up the church.
- 8. SING**  
a special song for Sunday school.
- 9. GIVE**  
whatever time I have to help the church grow.

## 제 77 공과 자발적 헌신

성경본문: 열왕기상 19:19-21; 마태복음 10:37-42

요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로새서 3:23)

“세바스찬, 여기 남아서 의자 정리하는 것 도와줄 수 있을까?” 마틴 삼촌이 물었습니다. 마틴 삼촌은 토요일 오후 청소년 모임이 끝난 후 교회를 정리하고 내일 예배 준비를 위해 모든 것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버지께 여쭙볼게요. 제가 학교 수학 숙제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세바스찬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의자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너희 집에 데려다줘도 되고.” 마틴 삼촌이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세바스찬은 삼촌과 함께 청소년들이 사용했던 의자들을 접고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삼촌을 돕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남아서 삼촌을 돕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숙제 때문에 서둘러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삼촌은 상자 속에 찬양 책을 넣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수학책을 빨리 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세바스찬이 삼촌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집에 있는 수학책이 널 기다릴 텐데.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란다.” 삼촌은 찬양 책이 담긴 상자를 그에게 건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찬양 책을 볼 때마다 오래전 일이 생각 난다. 아마 너보다 더 어렸을 때 일이지. 나는 구원을 받은 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단다. 어느 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던단다. 옛날에 여름 집회를 할 때는 아주 큰 텐트 안에서 예배드렸는데 찬양 책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집회 텐트 바닥에는 흙먼지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톱밥이 깔려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며칠 동안 텐트 안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상상해 보렴. 오후가 되면 호스를 틀어 바닥에 물을 부리고 톱밥을 다시 부렸단다. 그런데, 물을 부리게 되면 찬양 책들은 어떻게 되겠니? 찬양 책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누군가는 그것들을 치워야 했단다. 나는 어른들이 바닥에 물을 부리기 전에 찬양 책을 치우기 시작했단다.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나는 정말 기뻐지. 세바스찬, 너도 주님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구나.”

세바스찬은 삼촌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 삼촌은 나에게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삼촌, 저는 삼촌을 도우면서 정말

기뻐어요. 누군가는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 교회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지. 설교하는 목사님, 찬양하는 찬양대, 악기로 봉사하는 사람들 등 많이 있지. 그분들은 주님을 위해 그 일을 기쁘게 하고 있단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

“맞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정리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네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겠네요.” 세바스찬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외투를 입고,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전등을 크고 교회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해야겠네요. 주님의 일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힘을 내서 숙제도 해야죠.”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숙제하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 같구나. 그렇지만 그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 하듯 열심히 그것을 한다면 덜 힘들 것 같구나. 삼촌은 찬양 책을 기쁘게 옮겼던 것처럼 숙제도 기쁘게 했겠지.” 삼촌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듯이 내가 주어진 일도 주님을 위한 일처럼 기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세바스찬은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Lesson 77 Activity

**ARE YOU WILLING?**

Read each statement and decide what your reaction is. Color the happy face if it is willing. Color the sad face if it is complaining.

If I react like this . . .	My service is . . .	
It's my night to wash dishes again. Why do I always have to do them?		
I'm going to finish my homework as best I can because I want to please the Lord.		
There goes my Sunday school teacher. I'd better run to ask her if I can help with the lesson for next week!		
Boy, I can't wait to finish raking the yard. Maybe I'll just hide the leaves under the bushes. No one will ever know.		
Well, I'm going to offer to do a song for next Sunday because I love to do the Lord's work.		

Write the Key Verse for this week on the blank lines. Unscramble the circled letters to complete the statement below. The last letter is already in place.

\_\_\_\_\_ O \_\_\_\_\_, \_\_\_\_\_ O \_\_\_\_\_ OO \_\_\_\_\_,

\_\_\_\_\_ O \_\_\_\_\_, \_\_\_\_\_ O \_\_\_\_\_ • Colossians 3:23

I am \_\_\_\_\_ G, Lord!

##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헌신 할 수 있나요?

아래 문장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쁘게 할 수 있는 웃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화난 얼굴일까요?

### If I react like this . . .

It's my night to wash dishes again. Why do I always have to do them?

I'm going to finish my homework as best I can because I want to please the Lord.

There goes my Sunday school teacher. I'd better run to ask her if I can help with the lesson for next week!

Boy, I can't wait to finish raking the yard. Maybe I'll just hide the leaves under the bushes. No one will ever know.

Well, I'm going to offer to do a song for next Sunday because I love to do the Lord's work.

### my service is . . .



골로새서 3:23(KJV) 말씀을 적은 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알파벳을 아래 밑줄 위에 적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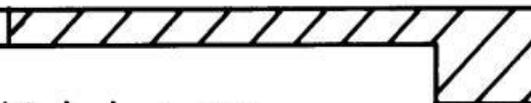
complete the statement below. The last letter is already in place.

atters to



AND WHATSOEVER YE DO, DO IT  
HEARTILLY, AS TO THE LORD,  
AND NOT UNTO MEN.

Colossians 3:23



I am WILLING, Lord!

## 제 78 공과 성경의 위인들

성경본문: 히브리서 11:32-40; 12:1-2; 베드로전서 2:21

요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시편 37:37)

“마커스, 쓰기 숙제 잘 되어 가니?”

마커스는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도 못 했는걸. 뭘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 동생의 말을 들은 형은 눈썹을 삐죽 올리며 물었습니다. “글쎄, 누구에 대해 쓰면 좋을까? 위인들은 과거 역사 속에도 있었고, 지금 유명인들 중에도 있잖아. 아니면, 너의 하나밖에 없는 멋진 형에 대해 쓰는 건 어때? 어디 슈퍼맨, 배트맨,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같은 인물 없나?”

“형, 농담 좀 그만해. 그런 인물에 대해 쓰면 선생님이 잘했다 하겠어?” 마커스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은 의자를 당겨와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 그럼, 너는 위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내가 공책에 적어놨어.” 그는 공책에 적힌 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의 사상이나 능력과 자질, 그의 성과와 업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그래, 잘 찾았네. 그런데, 너의 같은 반 친구들은 누구에 대해 쓰고 있는지 아니?”

“아이들은 마틴 루터 킹,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쓰는데, 그분들이 대단한 위인들이지만,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위인인가 생각해 본다면 아닌 것 같아. 맥크 해리슨에 대해 쓰는 친구도 있어. 그분은 정말 머리가 똑똑하지만, 내가 본받고 싶은 인물은 아니고, 유명한 연설가 에덴은 종교에는 부정적이고, 유명한 농구선수 웨슬리는 말하는 것이 별로이고…”

그의 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마커스, 네가 존경하는 위인을 어떤 부분에서 찾아야 할지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존경하는 부분이 다르잖아. 우리가 유명인들의 단면을 본받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전체적인 삶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잖아. 위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네가 본받고 싶은 부분의 위인을 찾아 글을 써보면 어떨까?”

마커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본받고 싶은지, 누구에 대해서 쓸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나는 너와 대화를 하면서 지난주에 배운 성경 말씀이 생각이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이런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위인에 대한 글을 써보면 어때?”

마커스가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 요즘 배우는 성경공과 내용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맞아! 성경 속에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이제 알겠어. 누구를 위인으로 삼고 글을 써야 할지.” 그는 자기 앞에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마커스, 내가 도와준 거 잊지 마! 그런데, 누구에 대해 쓸 거니?” 형은 동생의 옆구리를 꺾 찌르기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선생님이 과거나 현재 상관없이 본받고 싶은 인물에 대해 쓰는 것 좋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용맹한 군대 대장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해 쓰려고.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야.”

**BE A HERO!**

If you want to be one of God's heroes, write the words from the list on the left page in the blank spaces to discover some of God's commands.

**MATTHEW 5:42**

\_\_\_\_\_ to him that asketh thee, and from him that would \_\_\_\_\_  
\_\_\_\_\_ of thee turn not thou away.

**EPHESIANS 4:32**

Be ye \_\_\_\_\_ one to \_\_\_\_\_.

**MICAH 6:8**

What doth the LORD require of thee, but to do  
\_\_\_\_\_, and to \_\_\_\_\_ mercy, and to walk  
\_\_\_\_\_ with thy God?

**PROVERBS 23:4**

Labour not to be \_\_\_\_\_.

## 위대한 인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왼쪽 단어를 넣어 오른쪽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1. **GIVE** to him that asketh thee, and from him that would **BORROW** of thee turn not thou away. Matthew 5:42

2. Be ye **KIND** one to **ANOTHER**. Ephesians 4:32

3. What doth the LORD require of thee, but to do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thy God? Micah 6:8

4. Labour not to be **RICH**. Proverbs 23:4